



# 無 心



어떤 수좌 한 사람이 선(禪)의 본체를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선의 본체는 무심(無心)이다. 무심만 잡으면 선의 본체가 파악된다고 생각한 수좌는 어느 날 장작을 패다가 '무심'이 바로 눈앞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수좌는 장작을 패는 척하면서 무심의 거동을 살폈다. 그러다가 틀림없이 무심을 찍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무심이 앉아있는 곳을 향하여 열린 도끼를 내던졌다.

그러나 무심은 열가지에 벌써 옮겨 앉아 손뼉을 치면서 웃고 있었다. 수좌는 다시 도끼를 집어 들고 한동안 장작을 패다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면서 더욱 날째게 도끼를 던졌다. 아!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였다. 무심은 훨씬 앞질러 수좌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무심의 그 같은 눈치 빠른 행동은 계속되어 수좌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무심을 잡는 것을 포기한 수좌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끼자루가 빠져버렸다. 그 순간 도끼자루에서 빠진 도끼날이 무심을 찍어버렸다. 아!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무심(無心)한 도끼질에 '무심'은 잡히고 만 것이다. 무심(無心)이란 불가(佛家) 용어로 널리 통용되는 무아(無我)와 같은 말

이다. 무아의 경지(境地)에 이르러야 도통(道通)한다고 하지만 역조창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무아가 무엇인지 무심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다. 다른 표현으로 진아(眞我)와 가아(假我)라는 말이 있는데, 도(道)에 이르는 마음을 가진 나와 사된 마음에 끌리는 나로 구분한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화두가 거짓 나를 버리고 참 나를 찾자는 것이다.

참 나는 만유(萬有)의 진상(真相)이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요, 거짓 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의 악한 마음, 즉 마귀이다. 그런데 참 나인 나를 거짓 나인 욕심의 영인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어 참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를 제거해야 진아(眞我)인 하나님만 남게 된다. 그것이 바로 무아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무심이 무심한 도끼질에 잡힌단 말인가? 이는 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심에 대하여 막연하게 설한 이야기다.

이제 인류 최초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미륵부처님께서 감로의 정도를 들고 나오셨

다. 미륵부처님 되시는 조희성 선생은 진아와 가아, 그리고 무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쾌히 설명해 주신다.

“마귀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인 고로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속여야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의 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 않고, 잠이 올 때는 잠을 자지 않고, 쉬고 싶으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는 철저히 나라는 의식의 반대로 살아야 한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므로 나를 속여야 된다. 내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 마음이 진아(眞我)인 하나님에게 쫓겨 있어야 한다.

그런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백지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을 가루도 존재도 없이 없애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조희성의 주체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 내 이름도 몰랐고 나이도 몰랐으며 30여 년을 산 집도 몰라서 주소를 보고 물어서 찾아갔던 것이다. 100%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니 산천 초목이 절을 하는 것을 이 눈으로 본 것이다. 나를 이긴 자가 곧 마귀를 이긴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사망권세를 이긴 자인 것이다.”\*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하늘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Who lives in heaven?  
空には誰が生きていますか?

• 성경은 사탄이 하늘공중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Satan lives in heaven.

聖書はサタンカ空中に住むと話しています.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Nevertheless, all mankind prays toward heaven.

それにもかかわらずすべての人は空に向かって祈ります.

• 이것은 무서운 비극입니다.

This is a terrible tragedy.

これは恐ろしい悲劇です.

•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We have to realize the truth.

私たちは真理を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속담 속의 영생학

##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요 죽으면 전부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세상 많은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천국, 천당, 극락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이후에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껏 그들은 죽어서 또 다른 좋은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하고 인류의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해 왔지만 그것은 사람의 실체를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죽기를 싫어한다. 누구나 행복을 동경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당연히 받아들이던 것은 이제까지 참선생이 없어서 올바른 사람의 실체(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를 이야기 해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을 누렸던 존재였으며, 누구나 다시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죽지 않는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지만 만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으로 부처로 거듭나면 빛으로 화하여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진정한 천국 속에서 영원무궁토록 이승에서 살 수 있다.

승리제단에서는 구세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양상대로 행복하게 살면서 실천하여 변화를 입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이승을 원하는가? 2015년! 승리제단의 문을 두드려라!

참고문헌

### 우리말 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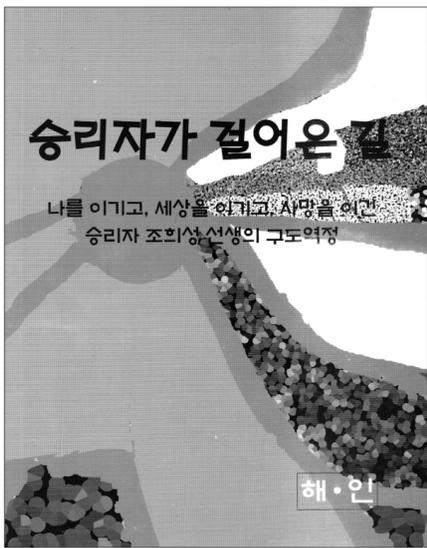
## 관형사 띄어쓰기

관형사는 단어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띄어 쓸 수 있다. 단어의 자격이 없는 접두사는 대개 한 음절로 되어 있지만, 관형사에는 두 음절로 된 것도 있다. 또 관형사는 그 자체가 지닌 뜻이 있으므로 그것을 띄어도 다음 단어의 뜻이 충분히 인식된다. 관형사의 역할은 여러 명사를 두루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관형사는 꾸며야 할 말의 앞에 오게 되는 것이다.

**첫째**,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띄어 쓴다.  
예) 각 가정 / 맨 먼저 / 몹쓸 놈들 / 근 열흘 동안 / 무슨 수작  
**둘째**, 양수사 앞의 수(數)는 관형사가 되므로 띄어 쓴다.  
예) 신발 한 켤레 / 20년 동안 / 최고 기 넷째 / 버스 서른 대 / 군함 50척  
이처럼, 명사 앞에 수사가 오게 되면 그 수사는 관형사가 되고, 명사는 양수사(量數詞)로 변하게 된다.

〈주의〉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서수사와 양수사의 띄어쓰기" 편에서 설명했듯이 위의 예문처럼 양수사로 쓰일 경우에는 명사(양수사) 앞에 관형사(수사)는 띄어 쓰지만 서수사가 나올 경우에는 앞의 숫자에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  
예) 7시간을 기다렸다. (시간이 서수사로 쓰임) / 7시에 만나기로 했다. (여기서 '시'는 서수사로 쓰임)  
**셋째**, 다음 말에 한하여 관형사 '재'는 뒷말에 붙여 굳어 버린 것으로 보고 붙여 쓴다.  
예) 새달 / 새봄 / 새맥 / 새작 / 새해  
**넷째**, 다음 말에 한하여 관형사 '재'는 뒷말에 붙여 굳어 버린 것으로 보고 붙여 쓴다.  
예) 한 번 / 여러 번 / 두 번  
**다섯째**, 하지만 막연하게 '일차' 또는 '일단'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의 '한번'은 붙여 쓴다.  
예) 집에 한번 다녀가라고 해라.\*  
이승우 기자

### 신간 안내



정가: 2,000원

# 승리자가 걸어온 길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구도 역정

열흘씩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도, 30일씩 물 한 모금 잠 한숨도 자지 않는 금식기도를 14번을 했어도  
'나'를 완전히 이긴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버리고 버려도, 죽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길을 찾았고,  
드디어 '나'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되고야 말았다.  
승리자 한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다.  
누구든지 승리자가 걸은 길을 걷기만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영생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필독서

우리 민족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출현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시게 되면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tel: (032) 343-9985

도서출판 해·인